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 변화

박성혜*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젠더감수성,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S 대학교 여대생과 대학원생 총 8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주 2회 8회기(16시간)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성지도 그리기, 성역할 고정관념, 성 이미지 콜라주, 바디스캔, 관계에서의 그림자와 페르소나 미술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매 회기 도입-주 미술활동-나누기 시간으로 구조화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젠더감수성,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회기 관찰 기록지, 미술작품 등을 질적 분석하였고 관련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자화상과 나무 그림검사와 PDI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참여자 모두 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성인 여성의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집단미술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섹슈얼리티,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젠더감수성, 자아존중감

* 주저자(elly9691@sookmyung.ac.kr),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즉, ‘성차별, 성추행, 성폭행,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이슈들로 인해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킨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3년 전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24).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경제적 부양과 의사결정은 남성, 가사 및 돌봄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상승했으며 성별에 선 여성, 세대에선 20세 미만과 20~30대의 성역할 고정관념 동의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SNS 댓글이나 영상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혐오나 남성혐오가 여과 없이 표현되고 있으며, 각각의 성에 대한 성 차별적인 표현이나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태도 등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여성과 남성이 가져야 할 속성이나 특성, 또는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일반화된 견해나 선입견을 의미한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특정 성별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OHCHR, 2014).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상대방의 성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극단적인 분노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비롯한 전반적인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

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의 성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며(Miller, 2001),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재생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국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을 단순히 성적 행위에만 국한해서는 안되며 이외에도 사회적 성별, 그리고 성적 느낌과 정서, 성적체감과 성역할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인 섹슈얼리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백유미, 2009).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우리의 정체성에 내재된 요소이며(Miller, 2024), 우리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스스로와 연결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욕망, 사랑, 그리고 취약함을 표현하지만 이는 때때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억압적인 사회구조, 문화적 시대, 그리고 트라우마는 우리의 성적 경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정서적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성평등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젠더감수성의 부족으로 성차별 이슈를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유능함이나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인 자아존중감(Rosenberg, 1979)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젠더감수성은 ‘성인지력’, ‘성인지 관점’, ‘성인지 감수성’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단순히 성차별적인 요소를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젠더 범주에 대한 이분화되어 있는 고정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감지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김경령, 서은희, 2020). 따라서 실질적

인 성 평등 확산을 위해서는 젠더 이슈를 스스로 감지하고 젠더와 다른 사회요소들이 얹혀서 만들어 낸 현상을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젠더감수성’을 키워야 하므로(여성가족부, 2018) 이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성역할 고정관념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이혜림, 한유진, 2021). 또한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어 이성교제 상황에서 성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전통적인 성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끼게 된다(강지영, 2019; 박유정, 2000).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통적일수록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여아에게는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조창익, 2005). 이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이 내리는 판단에 신뢰를 가지고 이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혜림, 한유진, 2021).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포함한 전체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은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섹슈얼리티 인식이나 성평등 의식 프로그램은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다양한 언어적 접근의 개인 또는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언어적인 접근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능숙하고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용이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방법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자신의 숨겨져 있

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감정을 더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미술 매체를 통한 미술치료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억압되어있는 환경에서는 섹슈얼리티와 미술치료를 결합함으로써 민감한 문제를 비언어적이고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림이나, 만들기, 창작 글 쓰기 등의 예술적 표현은 성에 대한 올바른 언어를 찾지 못하더라도 성적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기 자신이 모티브가 되는 자화상 표현 등의 작업은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을 지각하게 하여 자신의 외향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신도 함께 표현하게 한다(전현선, 2008). 자신의 외적 자화상을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면, 자아의 힘과 그 결과를 인식할 수 있다(오종은, 2004). 이는 자아상의 발달을 돕고,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과 자아개념 향상에도 기여한다(땡은경, 2002).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나무그림 검사에 대한 연구들(기정희, 2015; 김갑숙 외, 2019; 서복희, 이근매, 2011)에서도 미술치료적 접근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과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술치료에서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미술 작업은,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자아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섹슈얼리티 인식은 개인미술치료보다 집단미술치료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고, 구체적인 작

품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 참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교환, 상호작용, 타협, 또 다른 형태의 교환이 일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Malchiodi, 2006), 감정의 공유와 지지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알고 싶다는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Liebmann, 2004/2013), 섹슈얼리티 집단미술치료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 미국 성교육자-상담사-치료사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exuality Educators, Counselors, and Therapists) 및 전국 성건강 연대(National Coalition for Sexual Health)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섹슈얼리티 관련 교육 및 치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술치료사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Potash,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는 성적 자아 탐색을 위한 3차원 상자 작업 연구(Galinsky, 2023)와 같은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거나, 미술치료 전문가들이 블로그나 전문 홈페이지를 통해 섹슈얼리티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미술치료를 포함한 상담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로는 노년기 섹슈얼리티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백유미, 2009)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경험을 통한 인식변화 분석 연구(백유미, 2013) 등이 존재하나, 해당 연구들이 제한적인 대상과 범위 내에서 이루

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섹슈얼리티 관련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대부분의 성인은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거친 후 여전히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 간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 차이로 인해 성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성관계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억압과 강요에 의한 데이트 성폭력 상황에 놓일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비혼이나 결혼 상황에서도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고정관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기성세대에 의해 차별적으로 사회화된 고정관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젠더감수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최영미, 정현용, 2020). 특히 성인 여성은 성인 남성에 비해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고정관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섹슈얼리티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 여대에 재학 중인 여대생과 여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감수성의 변화 정도는 어떠한가?
2.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변화 정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S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에서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S 대학교 인권·성평등

센터를 통해 처음 신청한 11명이 우선적으로 모집되었으나 1~2회만 참석하였던 참가자 3명은 제외하고 총 8명의 미술작품, 소그룹 활동을 통한 토론 내용, 회기별 기록지, 객관식 검사와 그림검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남성과 다른 여성으로서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정체성 혼란, 성역할 고정관념 등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과 동성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회기별 기록지, 미술작품, 참여자 간 역동 및 언어적 상호작용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별칭)	성별	연령	학년구분	신청이유
윈터	여자	21	대학생	나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
하늘	여자	23	대학생	앞으로 상담사가 꿈인데 성관계 이유와 관련된 감정에 대한 점검을 받고 싶다.
보보	여자	40	대학원생	어린 시절 성에 대한 외상 경험으로 잘못된 성인식이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또치	여자	39	대학원생	여자로 태어난 것이 싫었다.
아금	여자	42	대학원생	성에 대한 나의 거부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데이지	여자	37	대학원생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싫었다. 남자애들과 주로 놀았는데 지기 싫었다.
보석	여자	48	대학원생	섹슈얼리티에 대한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알아보고 싶다.
참새썹썹	여자	38	대학원생	젠더 이슈에 대한 점검과 자기이해를 하고 싶다.

등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사전·사후 점수비교를 위한 젠더감수성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 자화상, 나무검사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1) 젠더감수성 척도

본 연구의 젠더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진영(2011)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남녀 성평등 의식 검사(KGES: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에 대한 개방성 7문항, 자기성찰 8문항, 비폭력 7문항,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9문항의 4개 하위요인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감수성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진영(201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한국어로 번안, 이자영 외(2009)가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자영 외(200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3) 자화상 그림검사와 나무그림 검사

본 연구에서는 자화상 그림검사 점수(SPDS)와 자아존중감(RSES)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김선현과 정지영(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그림검사로 자화상 그림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의식적인 자기상을 알아보기 위해 나무검사를 실시하고 PDI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화상과 나무를 그리고 이를 이메일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참가자들로부터 자신의 그림을 오픈채팅방에 전송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섹슈얼리티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섹슈얼리티 구성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S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적합한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 도구를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개발한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S 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

였다. 연구참여자는 S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명과 대학원생 6명 등 총 11명이었으며, 처음에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분석에는 1~2회기만 참여한 3명을 제외한 8명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검사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의 활용 동의서 등의 내용을 담은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1주일에 2번, 120분씩 총 8회기를 Zoom을 통해 연구참여자 모두 화면을 켜 상태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사전에 기관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검사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의 활용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문과 관련 서류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젠더감수성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로 구성된 설문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었고, 자아존중감을 그림투사검사로 알아보기 위해 자화상과 나무 그림을 그리고 PDI가 이루어졌으며 사후에도 같은 형식으로 객관식 검사와 투사검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과 자화상 및 나무 그림을 그리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4.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성역할 고정관념, 성정체성 인식, 섹

슈얼리티와 몸, 성인식 변화, 자기통합으로 섹슈얼리티 요소를 구성하였다. 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치료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얻었고, 사전에 미술치료 전공자들과의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회기별 관찰 기록지와 참여자들 간 역동 및 미술작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사전, 사후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각 척도검사에서의 집단의 평균점수와 개인별 점수의 사전, 사후 점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그림검사를 통해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자화상과 나무검사의 사전과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질적 분석하였다.

표 2.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주제	활동내용		기법 및 주재료
성역할 고정관념	사전검사	그림검사, 척도검사(온라인)	검사지, 연필, 지우개
	1 Warm-Up 활동 나는 OO이다.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1 자기소개 및 인사 나누기	8절지, 사인펜
	성지도 그리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지도를 표현해본다.	8절지, 그리기 도구
성역할 고정관념	Warm-Up 활동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2	
	2 섹슈얼리티 이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념을 함께 논의해본다.	ppt 자료
	내가 지니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성 vs 여성성에 대해 표현해 본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 (~하면 좋겠다)	신체상 8절지 또는 4절지, 잡지류, 풀, 가위, 그리기 도구 등
성정체성 인식	Warm-Up 활동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3	
	3 나의 성 히스토리	성장에 따른(유·아동기, 청소년기, 현재 등) 성인식 경험에 대해 시기별로 표현해 본다.(예: 성역할 경험, 첫 생리, 첫 이성관, 첫사랑, 차별경험 등)	4절지, 꾸미기 재료, 그리기 도구
성정체성 인식	Warm-up활동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4	
	4 자기상과 닮은 이미지 스토리	나와 닮았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찾아 스토리를 구성(4~6컷)해보며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성 정체성을 인식해 본다.	4절지(8절지), 그리기 도구, 다양한 이미지들
섹슈얼리티와 몸	Warm-up활동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5	
	5 생리 주기 작업	자신의 몸(생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생리 주기에 따른 감정을 표현해 본다.	ppt자료, 8절지, 그리기 도구
	나의 바디스캔	나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생리주기에 따른 나의 감정과 사고에 대한 점검 후 바디스캔 미술작업을 통해 표현해 본다.	8절지, Body 이미지, 그리기 도구
성인식 변화	Warm-up활동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6	
	6 내 안에 살고 있는 감정노예 (괴물)	나의 성역할에 따른 내 안의 감정노예를 표현해보고 네이밍을 해보며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인식해 본다.	점토류
	감정노예 해방시키기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노예를 종이상자 표면에 표현해봄으로써 해방작업을 해본다.	종이상자, 그리기 도구, 꾸미기 재료
성	7 Warm-up활동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7	

주제	활동내용		기법 및 주재료
인식 변화	나의 그림자와 페르조나, 통합이미지	종이를 대문형식으로 접은 후, 안쪽 한쪽에는 자신의 관계와 관련된 '그림자'를 표현하고 다른 쪽에는 '페르조나'를 표현한 후 통합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	8절지(4절지), 그리기 도구, 꾸미기 재료
자기 통합	Warm-up활동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8	
	자아상 만다라	3가지 자아상(성정체성, 관계, 몸) 관련 만다라를 꾸며 본다.	4절지(8절지), 꾸미기 재료, 그리기 도구
	나의 섹슈얼리티 책 제작	새롭게 알게 된 나의 섹슈얼리티를 책으로 만든다.	4절지, 잡지, 그리기 도구
	사후검사	그림검사	검사지, 연필, 지우개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회기별 관찰 기록지, 미술작품, 소그룹 토론에서 나타난 언어적 반응과 상호작용 및 역동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였으며 아울러 젠더감수성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자화상과 나무그림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젠더감수성의 변화

1) 미술작품에서의 변화

(1) '여자는 00해야 한다'라는 굴레에 머물다.

1~2회기에서는 성지도 작업과 신체상 작업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표현하였는데, 대체로 결혼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성지도 키워드가 남성, 여성 등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한 참여자들에게서 결혼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키워드

가 더 두드러졌다. 2회기에서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여자는 00해야 한다.', '남자는 00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아래,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여자는 꾸며야 한다.', '여자는 조신 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며 요리도 잘할 줄 알아야 한다.', '마트 계산은 여성이 해야 한다.' 등과 '남자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마음이 넓어야 한다.', '남자는 외모에 무심해야 한다.' 등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성관계에 있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거나 결혼과 양육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더 해야 한다.' 등의 고정관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야금와 토치는 기혼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성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였는데, 미혼인 20대 원터는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 다소 혼란을 갖게 된 모습을 보이며 보보와 토치에게 연상된 단어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이라는 단어에 여성 성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남성 성기만 적은 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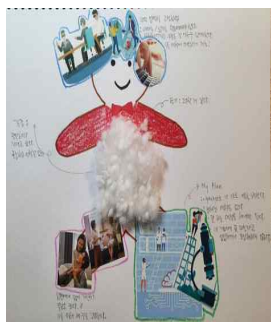


그림 1. 야금의 신체상



그림 2. 보석의 신체상

의 단어선택에 모두 공감하며 여성 성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남성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야금은 잇고 지냈는데 어릴 적 그런 적이 있다고 공유했으며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자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고, 만능적으로 잘하는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다.'였다.

보석: "성관계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면 남자가 생각할 때, '이 여자 좀 놀았나 보다'하고 생각할 까봐, 자신의 레벨을 낮추게 된다. 이런저런 취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뜻 나오지 못하고 수동적인 부분들이 많고, 상대에 대해서도 성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 표현을 잘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 맞춰주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적이 있는가?"

(2) 섹슈얼리티와 몸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다

5회기에서는 섹슈얼리티와 몸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생리 주기에 따른 몸의 변화를 적어본 후 각 주기의 느낌과 감정, 거기에 따른 고정

관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자신의 몸의 소리에 신체 의 부분을 차례로 느낀 후 감각되는 느낌, 떠오른 심상을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등을 이용하여 질감 등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생리 주기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연결해 자신의 몸에 대한 민감한 변화를 알지 못했었다고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점점 자신의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하였다.

참새썩썩: "초경은 6학년 때 시작했는데, 친구 집에서 팬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 기억이 생생히 난다. 친구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해서 여성으로서 느꼈던 것 같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월경은 몸이 아픈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이것은 엄마한테서부터 유전적으로 오는 것 같다. 그래도 불편하지만 생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리 양이 너무 많아서 쏟아지는 느낌일 정도이다. 가임기가 시작되면 성욕이 올라가고 가슴이 커진다거나 배란이 어디서 되는지도 느낄 정도로(오른쪽인지 왼쪽인지까지) 민감하게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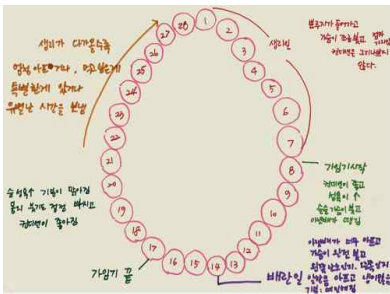


그림 3. 참새썩썩의 생리 주기 작업



그림 4. 참새썩썩의 바디스캔

(3) '성역할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고 실천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감정노예 해방을 위한 미술 작업을 통해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실천 메시지를 적었다. 6회기에서는 먼저 동성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와 자신과 타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인 감정노예를 찰흙으로 만들어본 후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감정노예) 해방을 위한 상자를 만들고 상자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 메시지를 적어보도록 하였다.

천 메시지를 적어보도록 하였다.

또치: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았을 때, 남자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다. 상대방을 다 받아줘야하고 나보다 더 완벽해야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도 그러길 원할 것 같다. 나한테 잘 맞춰주고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만큼 누구를 포용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릇을 처음에 만들 때는 오로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자주 살면서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다. 이후, 이것을 상자에 넣자니, 이것을 버리는건가,, 버리면 뭐를 하



그림 5. 또치의 감정노예와 해방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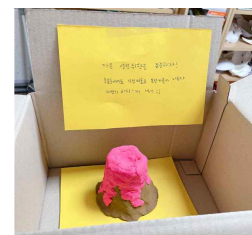


그림 6. 데이지의 감정노예와 해방박스

는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그마한 상자로 바꾸어서 그릇 안에다가 다른 모난 부분(다른 사람들도 모난 고정관념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봐주고,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활동들이 어려웠다.”

데이지: “감정노예에 대해서는 분출해야 되는데, 분출하지 못한 화산으로 표현했다. 해방작업으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배출하고 생각을 개방하자는 의미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실천 메시지로 ‘성과 관련하여 ‘개방적’이라는 선입견 버리기!’와 더불어 ‘다른 성적 취향을 존중하자’라고 썼다.”

소그룹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주제가 유달리 어려웠다는 참여자들의 반응이 있었다. 또 치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짜 어려운 개념인 것 같고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살던 여성들이 딸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던 것들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되어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도 점점 활동들에 대해 깊이가 생기고 어려움과 혼란을 지니지만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이 지닌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지향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서 나아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그리고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4)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 감수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보보의 경우, 매 회기 섹슈얼리티 미술작업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관계, 몸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갔고 젠더감수성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보보: “첫 번째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굉장히 대립되어 있고, 분노, 원망, 후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많이 혼란스러웠고, 3~4 회기쯤 꺼내 보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고 더 답답해지고 죄책감도 들고 슬퍼지기도 했다. 그리고 동성애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 자신에 대해 많이 바라보았고, 동성애자에 대해 수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으며 심지어 괴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반성하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이 공허한 마



그림 7. 보보의 섹슈얼리티(성정체성, 관계, 몸) 만다라

음이 많았는데, 공허함의 발생지가 무엇인지 찾고 있었고,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다. 도덕적 불안에 대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은 해방된 느낌을 받았다. 회기가 지날수록 시원한 느낌이 들고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자신에게 섹슈얼리티는 무엇가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같다. 이번을 통해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섹슈얼리티는 계속 찾아가도 되는 것이며,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괜찮은 것,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 등 의미가 큰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현재 기분은 자신이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챙겨서 집에 가는 느낌이고, 자기만 열어보는 상자에다 넣어놓고 꺼내 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섹슈얼리티 작업을 책 형태로 옮겨 만들어 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점점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보다 섹슈얼리티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이나, 관계, 그리고 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섹슈얼

리티에 대한 인식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원터: “회기 때마다 그리고 썼던 것을 읽다 보니, 학교 입학해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기들과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울고불고하면서 에너지 소모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다 같이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를 자신은 매듭을 지었다는 생각이 돼서, 또 그런 것을 겪거나 겪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상황 자체를 자신에게 만들기 싫었던 것 같다. 그래서 4~5회기까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혼란 자체를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회기가 지날수록 이런 것에 대해 섹슈얼리티에 대해 함께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안정화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던 변화가 있다.....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표현해보았는데, 처음엔 갇혀있고 얼어있는 땅에서처럼 무언가 하나씩 자라나서 그것에 대해 혼돈을 겪다 결국에는 가벼워진다는 과정을 표현했다. 앞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해 스스로 틀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고, 좀 자유로워지고 편해지고 싶다. ”

데이지: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그림 8. 원터의 책 작업



그림 9. 데이지의 책 작업

은 몸이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니 내가 어떤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변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졌다. 반면 변화되지 않은 점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환경에 따라 정체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 것 같다.”

2) 젠더감수성 척도에서의 변화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감수성의 사전·사후 윌콕슨 부위순위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Z=-1.680$, $p>.05$), 각 연구참여자의 젠더감수성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5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젠더감수성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약간의 점수가 감소하였으나, 미술작품이나 연구참여자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등의 역동을 관찰하였을 때

젠더감수성을 제대로 알게 되어 더 신중하게 젠더감수성 척도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또치의 경우 객관적 검사에서 점수가 감소했으나, “나를 조금 제대로 보게 된 것 같고, 그동안 자신이 여성인 것을 조금은 부정하고 살았던 것 같다. 이제는 그것들을 인정하게 됐고, 변하지 않은 것들은 소신 있게 살아가자고 했던 것들이고, 조금 더 보탬이 된 것 같다.”라는 언어적 반응에서 젠더감수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의 변화

1) 미술작품에서의 변화

(1) 과거의 성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지속되다

성정체성 인식이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보기 위해 성 히스토리와 자기상과 닮은 이미지 스토리 만들기 작업을 하였다. 먼저 3회기에서는 라이프라인 형태로 성 히스토리를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 각자 성과

표 3. 섹슈얼리티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젠더감수성의 변화

대상	사전	사후	점수변화
하늘	128	125	-3
보물	119	128	+9
보보	80	108	+28
또치	88	83	-5
아금	81	91	+10
데이지	99	107	+8
보석	94	93	-1
참새뼉뼉	83	95	+12
평균	96.50	103.75	
표준편차	18.04	16.27	

관련하여 시기별로 경험되었던 사건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성 히스토리 작업에서 첫 생리 때 무언가 축하받기보다는 위축되는 경험들이 많았으며 과거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자는 00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에 매여 지속적으로 소극적인 여성적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참새썹썹: “세 가지의 이슈가 있었다. 영유아기 때를 보면 유교 집안이고 딸만 셋이다. 어머니는 5번의 임신과 두 번의 유산을 했다. 부는 장남이자, 장손이었는데, 딸만 셋 낳아서 친조모, 친조부를 만나면 항상 반갑지 않았던 반응들과 기죽어 있었던 모와 세 딸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후, 작은아버지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대를 이었다고 서로 축하하고 환영해주었던 분위기가 있었고, 이름을 지을 때도 족보에 돌림자 쓰는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체감되었다. 청소년기에는 첫 생리 때(6학년) 축하받기보다는 쉬쉬 조용히 하고 정상이구나 하는 분위기였고, 생리 시작 후에는 이제 임신이 가능하다는 어머니의 얘기로 인해, 움츠러지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자아이들에게 생리혈이 보여질까봐 노심초사

했던 기억이 있다. 성인 때에는 직장 생활에서 주로 남자가 많고 여성이 적은 비율이었고, 평등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았다. 직장에서도 다과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자직원들이 해주길 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왜 여자들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4회기에서는 자기상과 닮은 이미지를 찾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편집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미술 작업을 통해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좀 더 과거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치: “여성스럽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첫째 딸이다 보니, 말 잘 듣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양보하고 그런 것들을 칭찬받으면서 암전하고 착한 딸로 큰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고도 많이 치고 덤벙대고 개구쟁이이고 매점에서 놀다가 혼나고 창문으로 기어들어 오고 그랬다. 사람들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는 물음표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피터팬처럼 어린 아이이고 싶었지만 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면을 쓰고 누르고 있었던 것 같다. 강인함이 남자라면 그런 것들도 다 숨기고 살았던 것 같다. 지금은 부모님들의 기대, 사회에서 하는 기대에 대해 당당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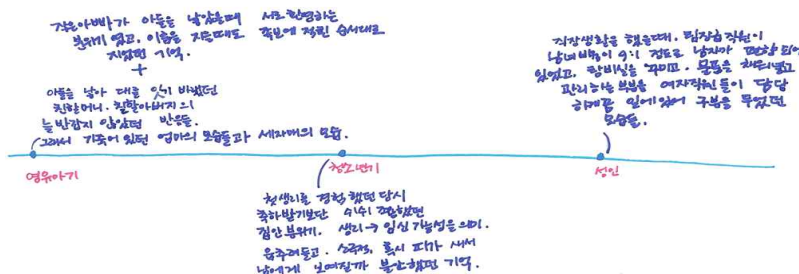


그림 10. 참새썹썹의 성 히스토리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결혼을 하지 않고 내 생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갈등들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다. 부모님의 얘기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척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하늘: “대학교 때는 꾸미는 것에 집착했다면 대학 생활 때 젠더나 섹스에 대해 알게 되면서 선을 긋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안과 밖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집단상담을 통해 아직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어려움이 나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깬다고 생각했는데, 집단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도 아직 길이 멀다는 생각에 어려웠다.”

(2) 진정한 나를 마주 대하기 시작하다

프로그램 후반기에 이르면서 7회기에서는 도입으로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

그림자와 페르조나, 이를 통합하는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미술작업을 실시한 후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도입으로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대부분 건강한 관계에 대해 존중, 성장, 독립, 노력, 두 사람이 혼자여도 괜찮은 관계라는 키워드가 대부분이었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의존, 집착, 일방적, 말하지 않는 관계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다음으로 관계에서의 나의 그림자와 페르조나, 이를 통합하는 진정한 나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13은 윈터가 자신의 그림자, 페르조나, 통합 이미지를 크레파스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윈터: “나의 보여지는 모습은 대체로 포용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챙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포근한 모습을 생각하며 붉은색으로 표현했다. 또한 나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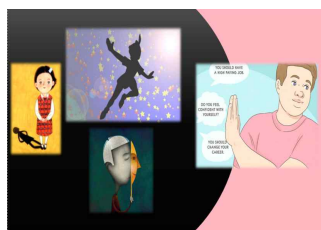


그림 11. 토치의 자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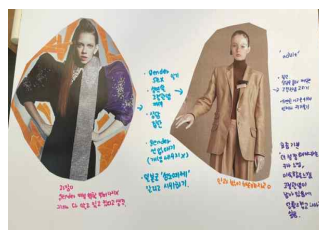


그림 12. 하늘의 자기상 이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관계에서의 나의

마음속으로는 칼같이 끊어내는 부분이 많은데,



그림 13. 윈터의 그림자, 페르조나, 통합 이미지

냉정한 모습, 정말 어두운 부분들은 정말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거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림자의 경우 우는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괴로워서 우는 모습, 냉정한 모습을 표현해 봤다. 통합된 나의 모습은 나뭇잎에 가까워진 식물에 가까워진 듯하고 약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다. 식물 같은 모습은 모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눈에 크게 비치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다.”

미술작품을 완성한 후 소그룹 토론으로 이루어졌는데, 각자의 작품에서 통합된 이미지에 대해 그림자와 페르조나가 합쳐진 표정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그것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그림자, 페르조나 모두 자신의 모습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3) 통합된 나를 인정하다

섹슈얼리티(성정체성, 관계, 몸) 자아상 만다라를 완성한 후 자신에게 있어서 섹슈얼리티가 무엇인지, 처음과 지금의 자신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다른지, 변화가 있는 것과 변화가 있지 않은 것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변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었다.

또치: “변화한 게 있다면, 처음에 했던 성지도를 보면 대부분 그냥 성(남자, 여자의 구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은 성이라고 하면 훨씬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문화부터 해서 가족, 엄마, 아빠도 많이 생각이 났고, 자신이 선택했던 것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나를 조금 제대로 보게 된 것 같고, 그동안 자신이 여성인 것을 조금은 부정하고 살았던 것 같다. 이제는 그것들을 인정하게 됐고, 변하지 않은 것들은 소신있게 살아가자고 했던 것들이고, 조금 더 보탬이 된 것 같다. 앞으로 나의 섹슈얼리티는 관계적인 면에서 조금 더 폭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여성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관계 만다라를 열쇠 구멍으로 그렸는데 굉장히 좋은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라는 다짐이 있다.”

각 연구참여자는 대부분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토론을 통해 집단 참여자들로부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20대인 원터의 경우, 20대가 아닌 분들과 이야기하는 자리가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좀 더 다양한 생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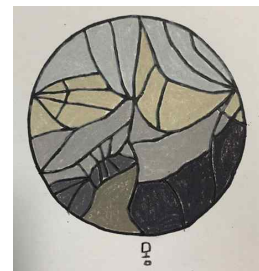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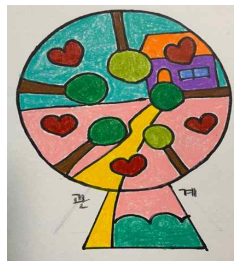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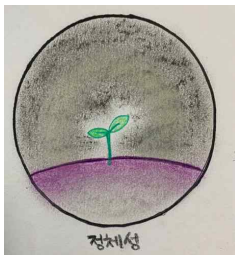


그림 14. 또치의 섹슈얼리티(성정체성, 관계, 몸) 만다라

과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섹슈얼리티와 몸에 대한 생리주기 작업이 가장 의미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모두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에서 자신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몸이 섹슈얼리티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심리검사에서의 척도 점수 변화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와 자화상, 나무검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월콕슨 부위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Z=-1.691$, $p>.05$). 그러나 각 연구참여자

의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사전 사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1~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였는데, 아주 큰 점수 변화를 보인 사람은 참새쫄쫄이었다. 참새쫄쫄의 경우 사전에 24점에서 사후에 33점으로 9점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다른 연구참여자와의 소그룹 토론을 통해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보는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상승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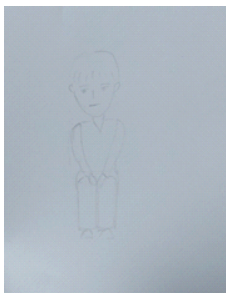
둘째, 섹슈얼리티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자화상과 나무검사의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그림검사에서 보인 변화는 자화상이나 나무검사에서 인물이나 나무의 크기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 커졌으며 PDI에서도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자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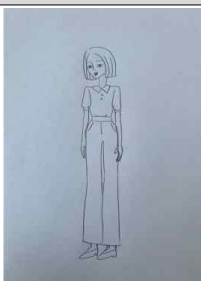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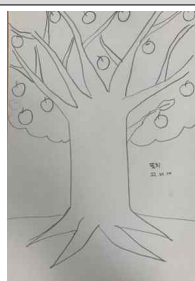
표 4. 섹슈얼리티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변화

대상	사전	사후	점수변화
하늘	31	32	+1
보물	37	42	+5
보보	44	41	-3
또치	27	32	+5
아금	38	36	-2
데이지	34	37	+3
보석	31	34	+3
참새쫄쫄	24	33	+9
평균	33.25	35.88	
표준편차	6.41	3.91	

표 5. 자화상과 나무검사의 사전과 사후검사 결과 비교

구분	검사	사전	사후	검사	사전	사후
원터 자화상				나무 그림		

자화상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크기가 좀 더 커졌으며 사전에 두 손을 가운데로 모아 있는 모습에서 사후에 양쪽 팔을 내려놓아 아직까지 경직된 모습은 있으나 사후에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의 자신을 그렸다. 표정에 있어서도 경직된 모습에서 웃는 모습으로 변했으며, 전체적으로 위축된 모습에서 아직 경직되었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나무 그림에서도 사후에 그림의 크기가 커졌고 가지가 선으로 표시되었던 사전에 비해 굵어진 모습에서 대인관계에서의 관계 욕구나 자신감이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나무그림검사 PDI에서도 사전에는 약한 나무 같다고 했으나 사후에는 강한 나무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존감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검사	사전	사후	검사	사전	사후
또치 자화상				나무 그림		

자화상 그림에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크기의 변화가 있었으며, 사전에 여성적인 모습에서 사후에는 머리 길이도 짧아지고 바지 입을 모습으로 바뀔으로써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나무검사에서는 아주 큰 변화는 없으나 사전검사에서는 한 지면에 나무를 다 그리지 못하는 다소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사후검사에서는 지면에 맞게 나무를 꽉 채워 표현하였고 PDI에서도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부드러운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검사	사전	사후	검사	사전	사후
데이지 자화상				나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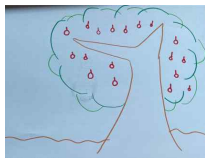
데이지의 경우, 사전 인터뷰나 자화상 그림에서는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사후에는 자신의 여성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나무검사에서도 사전에는 현재에 대한 과대보상으로 한 지면에 나무를 그리지 못하였고 PDI에서도 사전에는 나보다 아주 큰 나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후에는 나보다 조금 큰 나무라고 표현함으로써 적당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검사	사전	사후	검사	사전	사후
보보	자화상			나무 그림		

보보의 경우, 자화상 사전검사에서 좀 더 경직되고 눈을 감음으로써 현실을 회피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한쪽 손을 들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현실을 마주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나무그림 사전검사 PDI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애착욕구가 있으나 아주 강하고 전성기의 현재의 자신을 표현했으나 사후검사 PDI에서는 강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약하지는 않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며 여전히 따뜻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감정의 변화가 많았던 연구참여여성였는데, 미술 작업을 통해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분	검사	사전	사후	검사	사전	사후
보석	자화상			나무 그림		

보석의 경우 자화상 그림에서는 다른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손과 팔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전검사에서는 손을 내려 약간 경직된 모습을 표현한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손을 허리에 얹음으로써 좀 더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의 자신을 표현하였다. 나무 그림 사전과 사후검사 모두에서 자신을 강한 나무라고 하였고 관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다. 특히 사후검사에서는 많은 가지와 열매를 그림으로써 좀 더 많은 관계 욕구를 표현하였으며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구분	검사	사전	사후	검사	사전	사후	
하늘	자화상			나무	그림		

연구자
평가

하늘의 경우 자화상 그림에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사람 크기의 변화가 있어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나무 그림 또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사전검사 때 색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사후검사에서는 연필만을 사용하였는데 기저선이 사라졌으며, 크기에 있어서 지면을 넘는 경향성이 있었다. PDI에서는 사전검사에서 강하게 오래 살아남은 사람으로 표현했다가 사후검사에서는 단단하고 조화로운 사람으로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조화를 좀 더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좀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나 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S 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해 신청한 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가 성인 여성의 젠더감수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감수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보보의 경우 매 회기 섹슈얼리티 미술작업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관계, 몸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갔는

데 가장 큰 점수 변화를 보였다. 반면 젠더감수성 점수가 사후검사 때 사전검사보다 낮아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몇몇 참여자들이 젠더감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했다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알게 됨으로써 더 현실적으로 자신에 대해 평가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성이 있다. 이서영과 양성은(2021)은 젠더감수성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경계하면서 다른 성별의 지위에 대해 인식하고 통찰하는 능력으로 인지적인 노력과 개방적 감수성이 함께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일상을 바꾸는 연습이며, 젠더감수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서의 평등을 논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별에 따른 권력 차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성폭력의 내용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김경령, 서은희, 2021). 즉, 젠더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끼리 과거 경험했던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알아차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섹슈얼리티 담론을 집단미술치료와 접목함으로써 젠더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가 성인 여성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 변화를 비교해 볼 때 1~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증명한 연구(장형숙, 김정순, 2019)와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주장은 자신의 성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주장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주장을 뜻한다.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신의 정체성, 관계, 몸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성적 자기주장도 높아졌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적인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스스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유승권 외, 2007)와 성역할고정관념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혜림, 한유진, 2021)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집단미술치료는 성인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아존중감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아수용 및 자아통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보다 잘 알

게 되었고 자기통합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섹슈얼리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백유미, 2009), 대학생의 젠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김경령, 서은희, 2021)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섹슈얼리티 관련 미술 작업은 자신 내면의 감정과 사고,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미해결된 과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Kramer, 2001/2007) 이를 통해 자기 인식과 수용, 통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Malchiodi, 2006/2008).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만다라 작업을 통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통찰하고 통합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만다라 미술작업과 작품감상의 과정에서 성찰을 이끌어냈고 통합적인 알아차림을 경험했던 공황장애 경험 성인 여성 대상 집단미술치료 연구(이정원, 홍운선, 2024)에서의 치유 경험과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의 집단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술 작업을 나누면서 지지와 공감적인 피드백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윈터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보보나 데이지의 경우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섹슈얼리티 관련 갈등을 해결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젠더감수성, 자아존중감 증진과 더불어 자기 인식과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섹슈얼리티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질적 사례연구이기는

하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학교 방침상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실시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각 참여자들의 작업 과정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면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인 공동작업과 상호작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세대 간 섹슈얼리티 관점을 서로 비교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세대 간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발달 시기에 따른 섹슈얼리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회기 횟수의 제한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섹슈얼리티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집단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장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섹

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비대면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성인 여성의 젠더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집단미술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영 (2019).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향신문 (2024년 4월 23일). **‘성역할 고정관념’ 3년 새 더 강화. 여가부는 조사 결과 ‘미발표’**.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231648001>
- 기정희 (2015). 초등학생의 자존감 수준에 따른 나무검사(Baum test)의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22(5), 1233-1245.
- 김갑숙, 이미옥, 전영숙, 기정희 (2019). **그림을 위한 심리진단 및 평가 II**. 학지사.
- 김경령, 서은희 (2020). 젠더 감수성 측정을 위한 구인 탐색 및 척도 개발. **교육연구논총**, 41(4), 63-90.
- 김경령, 서은희 (2021). 대학생들을 위한 젠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성차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427-441.
- 김선현, 정지영 (2011). 자화상 그림으로 보는 자아존중감 그림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임상미술치료학연구**, 6(1), 13-23.
- 박유정 (2000). **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성역할정체감 및 자기의식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유미 (2009). **노인기 섹슈얼리티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백유미 (2013). 여성노인의 집단상담 경험을 통한 섹슈얼리티 인식변화에 관한 분석.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8), 3696-3703.
- 서복희, 이근매 (201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나무그림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18(4), 875-892.
- 여성가족부 (2018).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성인지 교육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 오종은 (2004). 아동의 자아상(Self-Image)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 분석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예술치료학회지*, 4(1), 49-66.
- 유승권, 이혜성, 황미혜, 홍순혜 (2007). 부모 애착, 성역할, 자아존중감과 진로 장벽의 구조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학업적 재능을 가진 여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연구*, 18(3), 357-380.
- 이서영, 양성은 (2021). 보육교직원의 젠더감수성 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244-257.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정원, 홍운선 (2024).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성인 여성 대상 MBSR기반 만다라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4(2), 27-52.
-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 한유진 (2021).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 454-460.
- 장형숙, 김정순 (2019). 국내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융복합지식학회 논문지*, 7(4), 149-159.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전현선 (2008). 시설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신체상(身體象) 표현중심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1), 45-67.
- 조창익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에 따른 청소년 비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1), 35-76.
- 최영미, 정현용 (2020). 대학생이 인식하는 성인 지 감수성 실태 분석(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4(2), 65-89.
- 팽은경 (2002). **자화상 표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 개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linsky, T. J. (2023). Diorama as a Tool for Exploring the Sexual Self.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44(4), 197-204.
- Kramer, E. (2007). *Art as therapy*. (치료로서의 미술: 크레이머의 미술치료. 김현희, 이동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

- Liebmann, M. (2013). *Group art therapy*. (집단미술치료-주제와 활동에 대한 안내서. 최외선, 김각숙, 전종국, 최윤순 역, 서울: 학지사, 2004)
- Malchiodi, C. A. (2006). *The art therapy source book*. McGraw-Hill.
- Malchiodi, C. A. (2008). *The art therapy source book*. (미술치료. 최재영, 김진연 역, 서울: 서울하우스, 2006).
- Miller, J. (2001). *The body in question: Gender, sexuality, and power in contemporary theory*. Indiana University Press.
- Miller, S. (2024, November 2). *Sex and art therapy*. Balanced Awakening.
<https://balancedawakening.com/blog/sex-and-art-therapy>
- OHCHR. (2014). *Gender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and women's righ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 Potash, J. S. (2023). Editorial: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ex positive art therapy. *The Arts in Psychotherapy*, 169-170.
<https://doi.org/10.1080/07421656.2023.228336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c.

A Case Study on Online Group Art Therapy for Sexuality Awareness of Adult Women: Changes in Gender Sensitivity and Self-Esteem

Park, Sung-H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online group art therapy focused on sexuality awareness for adult women, specifically exploring changes in their gender sensitivity and self-esteem.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eight femal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S University. They took part in an online group art therapy program focused on sexuality awareness, which was conducted twice a week for a total of eight sessions (16 hours). The online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xuality awareness included drawing a sexual map, exploring gender role stereotypes, creating sexual image collages, body scanning artwork, and art exercises addressing shadows and personas in relationships. Each session followed a structured format: introduction, main art activity, and sharing time.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ession observation records and participants' artworks to examine changes in participants' gender sensitivity and self-esteem. Additionally, pre- and post-program scores on relevant scales were compared, and self-portraits, tree drawings, and the PDI(Post Drawing Inquiry) cont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re were changes in gender sensitivity and self-esteem among adult women through the online group art therapy focused on sexuality awareness. All participants reported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overall sexual awarenes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s the positive changes in gender sensitivity and self-esteem among adult women through the online group art therapy program focused on sexuality awareness. It also confirms the applicability of group art therapy in providing opportunities to enhance sexuality awareness in adult women, making it a valuable approach.

Key words: Sexuality, Online Group Art Therapy, Case Study, Gender Sensitivity, Self-Esteem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 elly9691@sookmyung.ac.kr